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전주대신문

제 778호

2011년 6월 13일 월요일



분주했던 한 학기가 기말고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시험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학우들은 기대와 함께 긴장감도 감돌 것이다. 시험이 끝나는 동시에 여름방학, 시끌벅적 외출거렸던 캠퍼스는 조용해진다. 우리는 방학 중 학교에 몇 번이나 올까?

이번 여름방학은 학교에서 보낼 것을 권한다. 학교는 공부를 원하는 이에게는 도서관이, 문화생활을 원하는 이에게는 문화광장이, 피서를 원하는 이에게는 피서지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스타센터를 찾아, 개방형열람실에서는 그간 보고 싶었던 책을 보거나 공부하고 멀티미디어실에서는 DVD를 보거나 자료를 찾아보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다.

또 국제교류교육원이나 생애개발지원실에서 준비한 각종 자격증 대비반이나 영어 관련 강좌나 캠프 등에 참가하는 것도 좋겠다. 토익 Build Up 캠프, MOS Master 자격증반, 토익사관학교 등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다.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여학생은 물론 남학생까지 환영받는 곳이 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심리검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카운슬링센터도 여름방학 중에 한번쯤 방문하면 의외의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곳이다.

무더운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청춘을 싱그러운 캠퍼스에서 만끽하길 권한다. 2학기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것이다.

/ 글 박선화 기자, 사진 차정아(한식조리학 2)

■지·면·안·내■

- 2~4 News
2면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진흥(RIS)사업선정 중소기업계약학과 석사과정 20명모집 멘터-멘토를 만나다
3면 전국대학교수선교대회
4면 한식조리학과 '선물' 졸업작품전 패션전공 '고교연계 달린트, 나눔행사' 행정학전공 국회의원사당, 헌정기념관탐방
- 5 Opinion
독자투고
- 6 Culture
기자수첩, 문화산책
- 7 Opinion
교수칼럼, 미니인터뷰, 사설
- 8~9 Jump On
21C 아는 만큼 보인다
- 10 People
AMERICAN SPORTS UNIVERSITY 이사장 해리향 동문을 만나다
- 11 Campus Life
학교기관 소개, 동아리소개 게릴라인터뷰, 스포쿠
- 12~13 Mission
로고스, 진리의샘, 겨자씨 선교소식
- 14 중국어 신문
- 15 The JJ Globe

전주대신문 창간 1965년 5월 15일

우 560-7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200 전주대학교

발행인 이남식/편집인 양병선/편집국장 인쇄 제일출판/편집국 220-2442/운영실 220-2441

한 학기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한 학기 동안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학기를 마무리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 값으로 세워주신 전주대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간섭하여주셔서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붙잡아주셔서 학문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셔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영적분별력을 지닌 영향력 있는 리더십들을 길러내신 참된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 1학기동안도 주님의 은혜가운데 학사업무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총장님을 비롯한 전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비전을 품게 하시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는 건강한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학기동안 갈등하고 분쟁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합함과 교만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하셔서 더욱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교육하는데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시옵소서
길ियो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김형규장로(산학협력지원실 실장)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진흥(RIS) 사업 선정

3년간 18억여원 지원받아,무주군 식품산업 육성사업



무주군의 특산물인 천마와 머루주이다.

우리대학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2011년도 지역연고산업진흥(RIS) 사업에 '무주 웰니스 식품산업 육성사업(책임교수 최

종렬)에 공모하여 3년 동안 18억 3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RIS 사업은 무주군에 산업적인 기반을 구축하여 식품산

업 육성사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으며, 산학협력단(단장 심동희)에서 주관하여 (재)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무주반딧불유통사업단 등이 참여한다. 또한 3년 동안 국고 10억 5천만원, 지방비 6억 9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우리대학은 인력양성, 제품개발, 마케팅 지원, 기업지원, 네트워킹 등 학·연·산·관 협력 사업을 통해 산머루와 천마를 중심으로 하는 '웰니스 식품산업의 메카 무주'로 키우기 위해 산학협력 역량을 집중시키고, 무주군의 태권도공원조성, 전통공예품 테마파크 사업 등 관광산업을 연계해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대중 기자

중소기업계약학과 석사과정 20명 모집

120명 탄소관련전문인력 배출, 등록금 70% 지원



탄소나노부품소재공학과(전공주임 김홍건)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로 오는 28일까지 석사과정

20명을 모집한다. 등록금 70%를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지원을 받으며, 전북도 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5년 이상 재직자는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김홍건 교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는 2년동안 실무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석사급 고급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하고 "계약학과를 통해 배출된 우수 인재들이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미래 신산업인 탄소소재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기반 구축, 국가 R&D수행, 기업 집적화 등 탄소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탄소밸리 구축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추진전략을 위해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우리대학은 2009년 교과부 지역인재육성사업 공모전에서 '탄소경량화 소재/부품/제품 설계 및 신뢰성 평가 전문가 육성'이라는 주제로 전국 1위에 선정됐다.

그간 미취업자를 교육하여 12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고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여 계속사업으로 선정돼 2010년에도 탄소산업관련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예정이다.

지역스토리텔러 양성 지원사업 선정,전문창작과정 운영

산학협력단(단장 심동희)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1년 지역스토리텔러양성 지원사업'에 '전문 창작 과정 운영을 통한 로컬 스토리 네트워크 구축사업(책임교수 이용욱)'이란 주제로 공모하여 최종 선정되어 2천 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지역에 기반을 둔 우

수 작가를 노드(node)로 하는 스토리텔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의 우수한 작가들이 서로 연결되어 문화적 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체계적인 스토리텔링 교육이 요구되는 지역 스토리텔링 클럽과 전문 작가의 창작 노하우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링크화 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고유의 소재를 시, 소

설, 동화 등의 서사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장르별 저명 작가를 메인으로 하는 체계적인 창작 교육을 실시하며, 고등학교 문예반, 대학의 창작 동아리, 일반인들이 주축이 된 아마추어 동호회 등 지역 스토리텔링 클럽에 선택과 집중의 양질의 창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줌으로써 클럽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1 지역인재육성사업' 선정, 최고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정

우리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2011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건 등 총 3가지 사업이 선정되어 총 3억 6천여 만원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사업은 '탄소경량화 소재, 부품, 제품설계 및 신뢰성 평가 전문가 육성'(책임교수 김홍건/계속사업)으로 현장 중심형 교육 프로그램과 설계 중심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2010년 지역인재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전국 1위로 선정되어 총 230명의 탄소

산업 전문인력을 배출하였고, 이번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전북 식산업 맞춤형 인재육성'(책임교수 오영택/신규사업)은 식자재 물류유통 인력 양성, 현장형 기능 인력 양성, 한식 숙수 양성, 프랜차이즈 창업 인력을 양성하며, '완주 한지전통 문화산업'(책임교수 이유라/신규사업)은 한지 제조 명인 양성 과정, 한지 도배 명인 양성 과정, 한지 공예 창업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해 도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세계적으로 신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소재에 대해 교육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식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여 식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한지를 통해 지역 특화 및 문화상품을 제조하여 지역 전통문화 상품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멘티-멘토를 만나다

진로·생애설계 차근차근, 여대생커리어멘토링 확대운영키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차진아)에서 마련한 여대생 멘토링 간담회가 6월10일(금) 오후 12시 스타타워 3층 VIP룸에서 열렸다.

여대생들에게 계획적인 대학 생활과 체계적인 생애설계가 가능하도록 돕기위한 이번 멘토-멘티 간담회 행사에

는 차진아교수, 서은혜교수, 제혜금교수, 전기흥교수, 최영기교수 등 교내 교수님들과 CA, 취업지원관 및 외부

전문커리어코치, 기업관계자 등 멘토 30여명과 김서현(영미언어문화전공. 4)와 35명의 멘티가 참여하였다.

차진아 센터장의 커리어멘토링 프로그램 대한 안내와 김유리(건강기능식품학과. 4), 고아라

(한식조리학과. 1)의 멘토링 경험을 통한 소감문 발표에 이어 멘토와 멘티가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눴다.

차진아 센터장은 "커리어 멘토링을 통하여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진로를 발견하고 생애설계를 하는데 도움을 받기를 바라며 하반기에는 우수멘토-멘티를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전문 멘토를 섭외하여 커리어 멘토링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그간 여대생들의 커리어 개발과 직장에서의 대응능력향상을 위해서 커리어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총장 동정

제주포럼에서 '국가지역 브랜드' 현황특강



이남식 총장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개최한 '제 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특강을 하였다.

'국가, 지역 브랜드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하였으며, 국가브랜드위원으로써 현재 국가 브

랜드 지수,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변화 상세 분석, 대한민국 브랜드를 대표하는 '경제/기업', '과학/기술'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국가 브랜딩 활동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대해 특강하였다.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를 주제로로 설정한 제주포럼은 23개국 12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평화와 안보, 경제와 경영, 환경, 경영디자인, 문화, 여성, 교육, 브랜드로 종합포럼의 면모를 선보였다.

/이대중 기자

2011 새만금 국제포럼 참가



지난 1일 이남식 총장은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여는

'2011 새만금 국제포럼'에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새만금 개발과 투자를 위해 '동북아시아와 새만금'이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최근 경제상황과 한국의 새로운 성장산업을 모색하여, 선도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의 발전방향과 새만금 특별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하였다.

/김광룡 기자

제26회 전국대학교수선교대회

나눔으로 만들어 가는

더 멋진 세상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창1:31)

일시: 2011년 6월 30일(목) 14:00~7월 2일(토) 13:30

장소: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 예술관

주최: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

주관: 전북지역 대학교수선교연합회, 전주대학교 교수선교회

후원: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 서울온누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서울명성교회



▲ 동서양의 음식과 식품상품으로 개발한 제 9회 졸업작품전 '선물'이 열렸다.

한식조리학과 '선물' 졸업작품전

한식 세계화를 향한 힘찬 날개짓!

한식조리학과(학과장 한복진)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지역혁신관 105호에서 4학년 44명 재학생의 '제 9회 졸업작품전'이 열렸다. 본 행사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정하고, 정?효?사랑을 소주제로 정하였다. 한국 음식은 물론 동서양 음식의 조리기법을 사용

하여 출품자의 개성에 맞는 개인 작품 44점을 선보였다. 또한 '혼례'를 주제로 한 우리나라 전통 의례작품과 식품상품으로 개발한 공동작품 15작품을 선보였다. 과대 김민수(4)학우는 "졸업작품전을 하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의 한계를 보았고, 그 한계를 이겨낸 것 같다. 열

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식조리학과는 11년 전에 국내에서 4년제 대학에 한국전통 음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로 개설되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한식조리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되어 4년간 24억원을 지원받아 한식전문 인력양성에 기대가 되고 있다.

패션전공, '고교 연계 달란트 나눔 행사'



패션산업전공(전공주임교수 박현정)에서는 5월 28일 (사)전북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소장

나영신)의 장애우를 학교로 초청하여 캠퍼스 소풍과 패션 스티일 티셔츠 염색 강화를 진행하였다. 창조관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고교생 19명과 대학생 10명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자 29명이 행사에 참여하여 장애우와 1:1 짝을 이루어 커플티셔츠를 만들고 커플

패션쇼, 장기자랑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체험과 나눔이 함께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달란트 나눔 행사도 강좌, 복지 시설 방문, 패션 코디네이션 등 다양한 방식의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나아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장애우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학전공 공무원 특강 인기

50여명 수강, 2학기 국어특강

행정학 전공(전공주임 오재록)에서 마련한 '공무원 특강'이 큰 인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평화관에서 강하영 강사(한빛고시학원)가 행정학전공학생과 다

른 전공학생, 타 대학 수강자까지 총 5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다. 오재록 교수는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정이 매우 높아 6월 25일까지 총 1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한국사강의가 끝나면 2학기에는 국어 특강을 기획하

고 있다"며 "앞으로 공무원시험에 대비한 특강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규학회장은 "학원에 갈 필요도 없을뿐더러 저렴하고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하계방학 중 토익사관학교 참가자 모집, 선착순 200명

생애개발지원실(실장 이춘희)에서는 우리대학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토익사관학교를 열어 참가자를 오는 26일

까지 선착순 200명을 뽑는다. 토익사관학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주 동안 스타센터(238, 239, 240, 241호)에

서 열리고,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야가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http://job.jj.ac.kr>, 문의: ☎ 220-2129 /권희망기자

2학기 장학금 신청하세요! 30일까지, 단과대행정실

학생생애개발처장(처장 고준석)은 오는 30일까지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우를 선정(휴학생 제외)해,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장학금은 이사장 및 아가페, 나눔장학금 I, II, 장애우 장학

생이며, 선발 방식은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며 평균 점 평균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단, 교내 · 외 장학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2개이상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금액이 많은 한 가지만 지급할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을 위한 희망드림 장학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위한 미래드림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 후 학생지원실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학생지원실 ☎ 220-2164) /권희망기자

외식산업학과 '제 4회 학술제'

외식산업학과(학과장 민계홍)는 지난 2일 예술관 JJ아트홀에서 '외식산업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4회 외식산업학과 학술제'를 열었다. 이 행사는 재학생 160여명과 전주지역 외식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외식산업학 4학년 학생들이 그 동안 배운 외식과 관련된 이론과 현장을 만나며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주제를 선정하여, 조



사 연구방법을 통해 졸업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희망 기자

창업동아리 우수아이템 경진대회

42개팀 열전, 스마트버튼팀 1위로 700만원 받아

창업지원단(단장 이형규)이 주관한 'JJ-창업동아리 우수아이템 경진대회'가 지난 7일 예술관 리사이틀홀에서 열렸다. 청년창업 동아리의 우수 아이템을 발굴 ·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경진대회에는 도내 고교 및 대학 창업동아리 42개팀이 참가했다. 예심을 통과한 30개 팀이 결선을 벌인 결과 익산고 동아리 '스마트버튼' 팀(김유영, 김지선, 양성은)이 '휴대용 단추미싱기' 아이템으로 대학생 팀들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형규단장은 "의외로 고등학생들이 우수한 아이템을 보여 놀랐다. 문제의식과 발상의 전환이 창의적 아이템의 비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스마트버튼 팀은 휴대용미싱기를 통해 단추를 쉽게 달 수 있는 아이템을 선보였

다. 고정된 미싱으로 인해 수리가 불편한 점에 착안한 것이다. 심사를 맡은 전기공학부 창업보육센터장은 "경진대회에서 대학생이 내놓은 아이템의 70%가 애플리케이션 분야다. 스마트버튼팀의 아이디어는 어마어마한 게 아니다. 미싱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되 일상생활에서 휴대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화하고 휴대화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고 선정이유를 말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스마트버튼팀은 700만원, 우수상을 수상한 5개팀은 500만원, 장려상을 수상한 9팀은 300만원, 우수 아이디어상 15팀은 100만원의 아이템 개발비를 지원받았다. 수상자에게는 기술 및 창업,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가점을 주게 된다.



행정학전공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탐방

대정부질문 관람, 정치인과 간담회 가져

사회과학대학(학장 임성진) 소속 행정학전공 학생 45명과 지도교수 2명은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진로탐색과 사회전문 증진 및 행정학 전공의 심층교육을 위하여 국회의사당과 선거관리연수원 등을 방문하였다. 학생들은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대정부질문을 관람하고 헌정기념관을 방문하여 자료 등을 보며 역사와 행정의 현장을 둘러보고 민주당 이인영대

원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강성규학회장은 "국회 탐방 후 우리가 배우고 느끼는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국민으로써의 국가 운영의 참여가 국민으로써의 알권리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하고 "행사를 4월부터 준비하여 대정부질문이 있는 6월 3일에 맞춰 행사를 실시했는데 공무원을 준비하는 많은 학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소합니다! 친구를 살려주세요

스타센터 분수대에서 11일까지 모금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어교육과 학생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우 여러분께 간절한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1일,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인 국어교육과 이지광 학우가 심한 두통을 느껴 신기독교 병원 신경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MRI 검사를 하였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소견만을 받은 채 퇴원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 날 저녁, 갑자기 이지광 학우와 연락이 되지 않자 급하게 자취방을 찾은 친구들은 아무리 이지광 학우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119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간신히 문을 따고 방안으로 들어갔는데 방안에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있던 이지광 학우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전북대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하였지만 상태가 나빠져서 뇌혈관까지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태가

나빠져서 지금은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옮겨져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의사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뇌혈관을 잘라냈기 때문에 의식이 돌아오더라도 앞으로 장애를 갖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소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가족들과 친구들은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들고 의식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고 사실을 받아들일 겨를도 없이 엄청난 병원비와 치료비로 인해 가족들은 현재 감당할 수조차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입원비와 이미 진행된 몇 차례의 수술, 그리고 내일 모레 마지막 목숨을 건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환자실에 장기적으로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은 더욱 절망적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학우 여러분!

한없이 절망적이지만 한 상황이지만, 우리대학 1만 학우들이 함께 지광이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어교육과에서는 각 학생회를 통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타센터 분수대 앞에서 이지광 학우의 모금을 위해 일일 찾집을 열거자 합니다.

기말고사 공부를 하시면서 학우님들이 조그마한 관심을 보내 주신다면 그 응원의 힘이 병상에까지 들려 이지광 학우가 병마를 이겨내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타센터 분수대 앞에서 시원한 아이스티를 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어교육과 학생회

원대한 꿈



김재현 (국어교육 2)

사람은 각자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주위 사람들만 보아도 대입, 편입, 취업 등 자신이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며 산다.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은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게 실천하려 한다. 그러나 과연 그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그 계획대로 살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살다보면 많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에 당장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령 나의 지인의 생활을 말할 수가 있다. 그는 '카투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영어공부를 하고 있고, 그 목표에 맞게 생활을 계획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기흉'이라는 병으로 인해 그의 생활에는 많은 지장이 생겼고, 그의 계획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듯 삶을 살다보면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계획을 실천한다. 또 변수로 인해 절망을 느껴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원대한 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난 끈기와 노력이라는 두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든 간에 무슨 꿈을 가지고 있

끈기와 꾸준한 노력으로 "성취감"을 맛보겠다

던 간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한다면 무엇인들 못할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두가지만 있으면 기필코 꿈을 이루리라 생각한다.

나는 20살 때 까지만해도 나의 계획에서 약간이라도 흐트러지면 바로 포기하는 의욕 없는 그런 학생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나는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길을 잃은 거지같았다. 하지만 21살이 되고 한 여자를 만난 뒤에 나의 생활은 바뀌었다.

지금은 큰 변수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바뀐 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쉽게 포기 하지 않은 결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고, 그 성취감으로 인해 다른 것에도 도전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세운 계획에 변수가 생겨도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쉽게 포기 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포기 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의 꿈에 '성취감'이라는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 원고모집 ※

- 전주대 신문사에서는 학우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부분 : 독자투고(수필, 시, 제언, 편지 등 A4 1매), 디카폰카(사진과 설명)
- 혜택 : 원고료 지급, CP부여
- 일시 : 수시접수(jjnews@jj.ac.kr)
- 문의 : 전주대 신문사(220-2441)
- 편집국장(010-2300-8662)

To. 일본에 계신 부모님

“한국요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카하시 아즈사 (한식조리학과 1)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요즘 몸은 괜찮으신가요? 한국의 날씨는 변덕스럽지만 지낼만해요. 전주대학교에 입학했던 날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곧 방학이네요. 이메일은 자주 보내는데 편지는 거의 써 본적이 없어서 축스럽지만 학교 신문을 통해 편지를 써볼게요.

전주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많이 외롭고 한식조리학과 1학년에

는 외국인학생이 한명도 없어서 잘 지낼 수 있을지 많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전주대학교에 입학한 날 한국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서 '일본의 어디에서 왔어요?' '한국어는 어디서 배웠어요?' 라고 말을 많이 걸어줘서 그 걱정은 바로 사라졌어요.

예전부터 한국사람은 친절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친절했어요. 제가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서 한국인 친구들이 모르는 단어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을 때에는 천천히 말해주고요. 시험 전날에는 필기한 것을 보여주거나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저는 친구들보다 3살이나 나이가 많아서 더욱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역시 한국어강의를 모두 알아듣기는 힘들어요.

조리실습강의 때에는 4인 1조로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만드는데 내가 속한 조가 항상 늦게 끝나서 '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같은조의 친구들에

게 '언니, 우리 함께 열심히 해요. 언니와 같은 조로 배정되어서 좋았어요' 라는 문자가 와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학교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문제를 해결하곤 해요. 교수님들도 잘해주시고 국제교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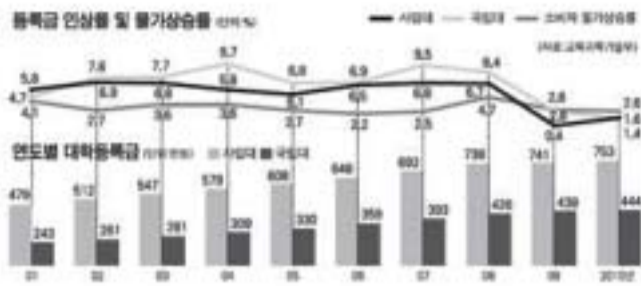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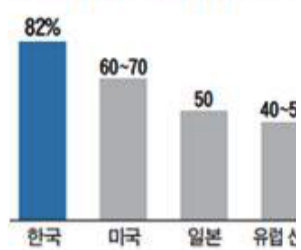
제 전공인 한국전통음식은 어렵지만 공부하면 공부 할수록 흥미롭고 더욱 깊게 공부하고 싶어져요. 저는 4년 동안 전주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식세계화'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방학에 엄마, 아빠에게 제가 직접 만든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먹고 싶어요. 엄마, 아빠 항상 건강하게 지내세요!

From. 엄마가 해준 밥이 그리운 다카하시 아즈사가.

기/자/수/첩

등록금 부담 없이 공부하고 싶어요.

국가별 대학 진학률 비교 단위: %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높다. 즉, 고등학교 졸업 후 약 82%가 대학에 진학한다. 어느새 우리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가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자기가 배우고 싶은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비싼등록금을 내서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니는 것은 공부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이 해당 공약을 부인하면서 자취를 감췄다. 때문에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서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들은 주로 사립대 학생들이다. 정부와 재단의 지원금이 적어 등록금이 연간 약 1000만원선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010년 전국 대학생 2,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록금 마련 방법'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5%가 가족 도움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많은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용돈을 벌기 위해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다. 권희망(사회복지 2)

학우는 방학 때가 되면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자기개발에는 꿈도 못꿈다며 하소연을 했다. 그녀는 "사회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나 경력을 쌓기 위해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시급이 높고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학생입장인 나 역시 우리나라 등록금은 지나치게 비싸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이렇듯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 학생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많다. 평범한 가정이라면 분명 어려움이 따른다. 적어도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기자는 생각한다.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다.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지금 학생들이 바라는 건 등록금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박선화 기자

■ 문화산책 · 책

광 장

-삶과 세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이번 호 문화 산책에서 소개할 책은 최인훈의 '광장'이다.

이 책은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하고, 중립국을 선택한 그 시절 대학생인 이명준을 통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묘사하고 이념의 허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명준에게 갈라진 남과 북이 각각 따르는 체제는 결국 허상이다. 체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사람들은 모두가 손해 볼 것을 감수

하면서도 체제를 맹목적으로 지키려 한다.

철없이 놀기만 하고 지적 허영만을 일삼았던 지난 시절, 나름의 개성철학으로 수궁하고자 한 논리가 있다. 국가 등 상위 기관에 의한 제도만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 경제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 좌우된다'는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따른다는 전제 하에, 개인 간의 약속으로 사회가 이루어지고 법치가 성립한다. 더욱 강한 제도만이 우리 체제를 조금 더 친인간적으로 유지시키는 중심축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1960년이나 지금이나 모든 것은 똑같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세계 어디든 모든 것은 비슷하다.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몇 번씩 바뀌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싹트고,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며 국민 복지가 개선되었다 한들, 아직도 우리 사회 우리 체제는 모든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뿌리를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인류는 진보하며 역사는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인훈이 보고 느꼈던 1960년과 20대가 된 내가 바라보는 2011년의 50여년 간극은 인류의 진보와 역사의 발전을 논하기에는 너무도 느린, 동시대적인 삶의 정지 상태가 아닌가 싶다.

1960년에 이명준이 꿈꾸던 중립국에서의 삶은, 내가 꿈꾸는 사회인으로서의 모습이다. 하지만 모르는 일이다. 젊은 철학을 가진 대학생 이명준과, 이런 이명준을 만들어 낸 25살 최인훈이 삶의 궤적을 몇 바퀴 돌고 난 후 중년에 바라보는 중립국에서의 삶은 어떤 다른 모습일지... 이 역시 우리의 한 평생이 역사가 진보하는 타이밍과 맞지 않기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가보다.

하지만 지금의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가졌던 자기 개선의 의지와 굳건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면 주저 없이 중립국을 택했을 것이다.

/박지은 수습기자

라도 그것을 실현하고 싶은 것이다. 마음의 재산과는 다르게 등록금은 점점 올라 대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국내 대학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등록금을 평균 60~80%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등록금이 싼 국립대의 인상률은 오히려 사립대보다 컸다. 우리대학도 지난해보다 등록금이 올랐다. 등록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에 비해 교육여건이나 장학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대학생 10명 중 5명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다음 학기를 휴학할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미엄 취업포털 커리어가 대학생 6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8.9%가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다음 학기 휴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한 윤이나(한문교육학 3)학우는 "등록금이 비싸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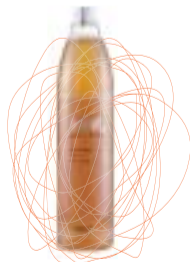
대학	등록금(만원)	대학	등록금(만원)
사립대	628만2100	연세대	869만2300
전국대	513만750	이화여대	869만300
서울사립대	477만5300	한양대	859만5000
연희대	454만5400	삼육대	852만300
부산대	448만9000	고려대	849만200
건국대	437만9000	숙명여대	816만7300
홍익대	437만9000	서강대	814만1300
한양대	432만1800	중앙대	801만9100

“EM을 만나면 생활이 건강해집니다.”

EM(Effective Microorganisms)은 유용(좋은) 미생물군을 말합니다. EM제품을 사용하면 좋은 미생물이 우리의 건강하게 하며, 하천으로 흘러가 환경을 살립니다. EM제품은 로하스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입니다.

EM제품은 천원상점 온라인의 유통망을 통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588-3043 www.evermiracle.com

전주대학교 EverMiracle



EMW(다목적 가정용) 12,000원



EM 발효 세탁세제 10,000원



EM 발효 섬유유연제 10,000원



가정용 EM 항균 탈취제 8,000원



고수칼럼



김동민교수
(예술치료학과)

유학생생활을 제외하고 서울을 벗어나 살아가는 처음이다. 느릿하면서 끝 여운이 긴 말씨도, 밑간이 깊은 손맛도, 팔이 안으로 굽는 정서도 낯설기 보다는 오히려 정겹게 느껴진다. 전주 생활 100일 만에 "맞아요, 그래요!" 대신 "그러지요~"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서울 한식당 반찬들의 가지수와 맛이 불만족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가끔씩은 "we"와 "they"의 구별이 진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많은 문화가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만큼 정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영문 발달심리학 책에서 "정"을 설명하던 구절이 생각난다.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지만, 오는 정이란 사랑(love)도 아니고 애착(attachment)과도 구별되는 정서로 오직 한국사람 만이 정확히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정서란 것이었다. 특히, "고운

전주에서의 100일

정"과 "미운 정"의 구별이 너무도 독특하다고 했다. 100년 묵은 전주의 정은 어떤 형태일지 궁금해진다.

전주의 느릿한 삶이 좋다. 지난 10년간 박사학위와 연구실적을 핑계로 꽃을 쳐다볼 생각도, 맨발로 잔디와 흙을 밟아볼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 올해 봄, 전주에서 너무도 오랜만에 새순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꽃길을 걷고, 나무 냄새를 맡아보았다. 웬 호사인가 싶었다. 삶을 즐기려면 느리게 움직이며 알아차림(awareness)을 해야 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끝없는 일정으로 정신 없는 삶이 허무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무렵, 때맞춘 듯 전주에 오게 된 것이 내 삶의 유의미한 전환점처럼 느껴진다.

느슨한 삶도 좋다. 길가에 삐뚤삐뚤 주인 없이 남겨진 차들의 꿈꾸미에서 유머가 느껴지고, 신호등 색은 그냥 참고만 하고 그대로 갈 길 가는 차들에서 생각 지 못한 자유를 느낀다. 아침에 마실 우유 한 잔을 사려해도 편의점 주위를 뱅뱅 돌며 잠깐 내 차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으면 하는 맘까지 드는 서울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내 맘대로 주차'의 자유를 만끽 중이다.

전주대 예술치료학과 학생들도 좋다. 진심담은 칭찬 한 마디에 까만 눈이 반짝인

다. 진솔한 관심 한 마디에 숨죽였던 맘이 열린다. 빛은 대로 빛어질 듯 순수하다. 내게 맡겨진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 부모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자식의 눈인 것처럼 학생들의 눈이 나를 성장시키리라 믿는다.

전주대에 오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다. 그 중 하나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다. 새로운 환경과 문화는 호기심 많은 나를 깨어있게 한다. 처음 부모님 집을 떠나서 지금까지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며 15번 이사를 했다. 이번 달엔 전주 안에서 16번 째 이사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음 달엔 서울 집도 작은 곳으로 옮겨야 하니 17번 째 이사도 예정되어 있는 셈이다. 도시를 옮기고 이사를 하는 일이 고되긴 하지만, 분명 나를 설레게도 한다. 호기심 발동이다.

전주에서의 100일을 맞은 나의 현재 고민은 전주의 맛갈스런 음식과 느낌의 여유 덕분에 얻은 4킬로그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다. 갑자기 튼실해진 내게 서울 친구와 동료들이 "전주가 살기 좋은가보네!" 한다. 사실이다. 적어도 지난 100일은. 이 100이 1000일이 될 때쯤엔 전주가 어떻게 느껴질까.

사설

<다양한 SPEC 쌓는 여름 방학 되길>

기말고사가 시작되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긴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된다. 여름방학은 학기중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좋은 기회이다. 대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다양한 SPEC 쌓아 풍성한 대학생활을 영유하는 2011년 여름방학이 되어보자.

첫째, 우리는 학기중에 전공서적에만 매달렸다. 그렇다 보니 교양서적, 문학서적, 고전서적 등을 읽을 여유가 없었다. 여름방학은 다양한 서적을 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특히 성경을 통독해보자. 성경은 가장 인기 있는 책이다. 세계의 문호 셰익스피어 작품이 60 여개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으며 해리 포터 시리즈도 약 천 만권 팔렸다. 이에 비해 성경은 무려 2천 여 언어로 번역되어 매년 5천 만권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 베스트셀러다. 최고의 진리이며 우리 인생의 갈 바를 인도하는 성경을 읽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름방학이 되어보자.

둘째, 대학 내에서는 여름방학을 위한 다양한 어학 및 자격증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맨투맨 학습카운셀링 프로그램을 통한 기숙식 단기몰입 캠프 하계 토익 Build Up 캠프(2011. 06. 27(월) ~ 2011. 07. 15(금)), 여름학기 교내영어특별반(2011. 7. 4(월) ~ 8. 19(금)),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토익사관학교(6. 27(월) ~ 7. 29(금)) 등의 어학 프로그램과,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개최하는 국제공인 MOS Master자격증 취득 교육 프로그램(6. 20(월) ~ 2011. 7. 1(금))이 준비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기본 어학지식과 자격증을 취득하여 보자.

셋째, 하계 방학중 해외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프랑스 부르그뉴대학, 독일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뒤셀도르프), 일본 구루메대학, 중국 소호학원에서 실시된다. 또한 (사)아시아교류협회에서 주관하는 2011 아시아 친한 친구 해외봉사단 in Laos가 8월 20일 ~ 8월 27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다. 라오스의 초등학교 교육봉사활동과 아시아 청소년 팀별 주제토론 및 팀별 발표, 아시아 문화 페스티벌, 문화탐방 등을 통해 아시아 청소년 국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하나 되는 아시아 친구들의 교류와 화합을 이루며 해외 견문도 넓히고 어학실력도 높이며 해외 대학생과의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경험해보자.

넷째, 국내에서 개최되는 자원봉사에 참여해보자. 전주시, 전라북도전주서교육청주관 대학생/청소년 자원봉사 멘토링 캠프가 "자원봉사! 우리가 간다"로 주제로 7. 27(수) ~ 29(금) 청정인성수련원(완주군 구이면 소재)에서 개최된다. 또한 걸스카우트 연맹이 주관하는 국제야영이 강원도 고성 잼버리장에서 Plant! Grow! Share!라는 주제로 07.25(월) ~ 31(일) 운영되며 50개국 12,000명이 대학생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대학의 사회봉사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봉사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자 주관하는 2011년 하계 과학나눔 봉사단 프로그램도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에서 주관하는 <2011 KF Summer Lecture Series>, 외교통상부 외교안보 연구원이 대학생의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외교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관하는 '대학생을 위한 외교통상부 워크샵'도 두 차례에 걸쳐(7.11(월)-15(금), 7.18(월)-22(금)) 개최된다. 이는 국제적 감각을 증진하며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번 여름방학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미지의 것을 추구하며 학기중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것을 체험하는 의미 있는 여름방학이 되길 기대해본다.

미니인터뷰



씨름 3관왕을 차지한 이중현 학우(체육학부 3)를 만나다.

"씨름은 내 꿈이자, 인생이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씨름이 자신의 꿈이 되었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MBC '대학장사 씨름 문경 한마당 대회'에서 개인전 3체급 역사급(105kg 이하) 우승. 지난해 대학 장사 씨름 대회 및 대통령기, 시·도 대항 등 전국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우리대학 씨름부 이중현학우를 만나보았다.

-우리대학의 씨름팀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우리대학의 씨름팀은 1학년 6명, 2학년 3명, 3학년 3명, 4학년 1명으로 총 1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씨름은 새벽과 오전과 오후, 야간으로 운동 스케줄이 짜여져 있다. 씨름을 하기 전 토끼땀과 목마, 튜브 끌기로 이루어진 하체운동이 있다. 비전대공과 대학 앞에 있는 운동장을 돌기도 한다. 그리고 씨름은 신홍고등학교에서 장수군청과 신홍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운동한다.

-씨름을 하게 된 계기는?

10남매 중에 막내이신 아버지는 어릴 적에 중학교 씨름부의 선수가셨다.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씨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만두시

게 되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자 씨름팀을 직접 찾아가셨다. 그 때부터 씨름을 배우면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계속 운동을 하게 된 것 같다.

-선수로서 운동을 그만 두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운동은 정말 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그만두고 싶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도 든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힘들어서 한번 도망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또 도망갈 가는 것'에 대해 공감이 갈 것이다.

한 번은 힘들어서 도망을 쳤는데 그 때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난다. "씨름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안다. 나도 이 길을 걸었고, 이겨냈기에 여기까지 왔다. 힘들고 도망치고 싶지만, 이 순간을 잘 이겨내면 너는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다. 힘을 내거라." 가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태까지 짧은 씨름의 길을 걸어온 나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스린다.

-나에게 있어서 씨름이란...

씨름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목표였다. 또한 씨름은 내가 가야 갈 길이기도 하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는 '천하장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씨름이 일본 '스모'에 비해 많이 관심이 적은편이고, 지원도 많

지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씨름문화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 앞으로의 목표는?

가장 급하고 중요한 목표라면 돌아오는 10월 초에 있을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 것이다. 전라북도 대표 7명이 출전하는데, 전국체전에서 1등을 하고 싶다.

지금은 정식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시청이나 구청, 도청에서 돈을 받고 씨름을 하며 홍보하는 실업팀에 들어가서 정식 선수생활을 하고 싶다. 실업팀 선수가 되려면 많은 실력을 겸비하고 우승을 쏙아야 한다.

-씨름팀에게 하고 싶은 말.

4학년 선배님이 운동을 할 때 우리를 잘 이끌어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가족 같은 동기, 후배들 또한 서로가 힘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 너무 좋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운동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우리 모두 열심히 운동해서 올리는 많은 수상을 하는 씨름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씨름장 모래가 딱딱해서 다칠 위험이 크다. 그래서 씨름장 모래가 부드러운 모래로 바뀌어 줬으면 좋겠다.

/ 권희망 기자

■ 21세기 아는 것만큼 보인다 / 멋진 옷차림이 행복을 만든다!



만족하면 사랑하고 감사하게 된다... 행복은 감사의 크기와 비례 행복은, 멋진 옷차림의 모습으로 비춰진 나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

■ 왜 내 옷장에는 입을 옷이 없지?

세계 공통의 미스테리가 있다... 바로 내 옷장엔 언제나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실제로는 옷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옷을 필요로 하게 된다. 도시마다 옷 가게가 넘쳐 나고 백화점의 한두 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층이 패션 매장인 이유가 거기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입지 않는 것일까? 그건 바로 패션이 지니고 있는 어떤 힘 때문일 것이다.

■ 패션이란 무엇인가?

그 패션의 힘이란 무엇인가? 멋진 옷차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다. 패션은 옷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결코 멋진 옷차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일까?

패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유행, 관습, 도덕, 라이프스타일,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패션이다. 패션은 마치 신문의 1면 톱기사와도 같다. 그만큼 시대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패션이란 우리가 입을 것은 물론 마시는 것, 영화, 음악, 광고, 차, 장소... 이 모든 것이 패션이며, 패션은 또한 이 모든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패션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조명이 필요하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 패션은, 단순히 트렌드를 반영한 멋진 옷만을 쇼핑해서 착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멋진 옷을 입기 위해 S-라인을 위한 몸매 관리에서부터 분장에 가까운 메이크업과 손에 든 고급 핸드백, 그리고 의상에 맞는 구두까지 신경을 쓴다. 나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유명 커피 전문점 로고나 찍힌 커피 한 잔을 드는 것까지 진정한 패션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패션은 시대정신과 자기표현의 철학을 담고 있다. 지구 환경을 염려하고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션 트렌드로 '에콜로지(Ecology)'가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봐라! 이 지구의 환경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옷을 입는다!"라는 시대정신을 에콜로지 풍의 옷에 담아 자기주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패션은 때와 장소에 맞는 착장을 필요로 한다.

때와 장소에 맞는 착장 제안이란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멋진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멋진 착장이란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그 방법과 기준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T(Time), P(Place), O(Occasion)에 따른 옷차림은 그래서 중요하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올바른 착장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온 타임(on time=회사나 공공기관, 면접 등의 근무 시간)은 비즈니스에 알맞은 품격있고 말끔한 정장 차림을, 두 번째 오프 타임(off time=근무시간 이후 개인적인 시간)에서는 동료나 친구들과 모임에 적합한 세미 정장 차림을, 세 번째 위크엔드(weekend=주말이나 휴일의 휴식 시간)에는 편안함과 기능성을 겸비한 스포티한 캐주얼 차림을, 마지막 네 번째 애프터 식스(after 6=오후 6시 이후의 공식 파티나 만찬, 음악회 등의 시간)에서는 규정된 드레스 코드에 맞춘 텍시도나 드레스의 착용이 좋은 옷차림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를 만들어 가는 훌륭한 착장이라고 볼 수 있다.

■ 첫인상과 의복

위에서 말한 라이프스타일 별, 착장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상대를 탐색하면서 평가를 내리고 첫인상을 갖게 된다.

첫인상! 처음 만난 상대에 대해 상대의 허락도 없이 내 자신의 생각대로 규정하고 마음에 담게 되는 것이 첫인상이다. 거꾸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나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나를 규정하였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인상을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의복의 착용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은 달라지며,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있어서의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의복은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을 위장하기 위해서도 이용된다. 좋은 의미의 위장은 자기 자신을 좀 더 아름답고 보다 좋은 성격의 소유자로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때와 장소에 따라 상대의 옷 차림을 보고 그의 첫인상을 평가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인사담당자 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입사면접에서 지원자의 외모나 옷

차림이 당락에 영향을 준다"는 답변이 66.7%로 나왔다고 한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옷 잘 입는 법

그렇다면 좋은 옷차림은 어떤 것일까? 좋은 옷차림으로 옷 잘 입는 멋쟁이가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옷 잘 입는 멋쟁이가 될 수 있을까? 명품만을 고집한다고 해서 옷을 잘 입는다고 할 수 있을까?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는 어느 옷이든 소화 할 수 있는 자신의 몸매를 만들어야 하며, 두 번째는 트렌드에 맞게 잘 조합하여 당당히 착용해보는 용기이다.

최근에는 일품 멋쟁이들을 일컫는 '리세서니스타'(Recessionista)들이 늘고 있다. '리세서니스타'는 몇 년전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신조어이다. 경기침체를 뜻하는 '리세션'(recession)과 최신 스타일을 선호하는 소비자라는 뜻의 '패셔니스타'(fashionista)의 합성어로서 비교적 저렴한 옷으로 멋진 차림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최근 서울 강남의 고급 패션 거리 '청담동 길'에는 손님이 뜸하고 '신사동 가로수 길'에는 리세서니스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로 늘 북적대는 대조적 풍경을 보더라도 비록 값비싼 옷이 아니라도 충분히 멋진 옷차림을 만들 수 있다는 새 흐름을 느낄 수 있다.

■ 행복의 시작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의 시작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온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기도 사랑해 줄 여유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아 사랑은 타인에 대한 사랑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멋진 옷차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 내 모습,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감사는 마음 밭에 수없이 자라나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라는 잡초를 없애는 제초제"라고 한 글이 생각난다. 당연한 일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

는 훈련을 반복하면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학교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더욱 감사할 일들이 눈앞에 확 펼쳐지고 어느 날 내 앞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일상의 행복을 찾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나의 멋진 옷차림이다. 작다면 작은 옷차림 하나라도 생각될 수 있지만,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 거울

에 비친 자기 자신의 멋진 모습에 만족하게 되면,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멋진 내 모습에 감사하게 된다. 이 감사의 크기가 바로 내 행복의 크기가 될 것이다. 결국 행복은 옷 잘 입는 나, 멋진 옷차림의 모습으로 비춰진 나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경 문 수 교수 (패션산업전문 객원교수 전 (주)에스그룹(코데조컴바인, 마루 등) CEO)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AMERICAN SPORTS UNIVERSITY 이사장
해리황 동문(80, 경영학과 졸)을 만나다**

“진실로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세요.
언젠가 그자리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번 호 만나고 싶은 사람은 1980년 2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성공한 재미 사업가에서 미국최초의 스포츠산업특화대학인 AMERICAN SPORTS UNIVERSITY(이하 ASU) 이사장으로 변신하여 세계적인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Harry Hwang 박사(한국명 황형규)를 e-mail을 통해 그의 꿈과 비전을 들어 보았다.

1978년-1980년 전주대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당시 대학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그때는 지금처럼 아름다운 효자동 캠퍼스가 아니고 구 노송동 캠퍼스였다. 야간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당시 근무하던 정읍의 화호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을 마치고, 전주로 가서 수업을 마치고 밤에는 처음에는 택시를 이용하고 하교하다가 나중에는 학교에서 건의하에 학교 스쿨버스를 이용하여 집으로 갔다. 일주일에 한번씩 했던 채플(chapel)은 현재 나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다.

- 대학 졸업 후 언제 도미를 하였으며 도미 후 미국에서 성공한 재미 사업가로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어떤 사업을 통해 성공하셨는지?

1981년 8월에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생활을 하다가 유학을 결심하고 가방 2개를 들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때만 해도 미국 유학이 지금에 비하면 많이 없었고 미국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미국은 정부가 돈이 많으니 정부상대를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첫 사업으로 주정부와 계약하여 고속도로 관리사업을 시작으로 미군의 헬기 관리 등 여러사업을 했다. 사업을 통해서 성공했다는 말보다는 남들이 못하는 사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 사업문제로 인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미국 최초의 스포츠특화대학인 ASU를 설립하였는지?

사업을 하면서 꽤 많은 부와 명성을 쌓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있으면서 지역 태권도 대회를 후원하면서 태권도 사범들을 많

이 접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미국에 태권도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원래 교사출신인 내가 교육사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범들의 이런 제안에 대해 검토하다가 미국에 스포츠 특성화 대학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국체육대학교와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체육전문대학들을 검토 롤모델로 삼아서 검토 해 보았으나 미국에서는 엘리트 체육이 따로 없고 생활체육이 일반화 되어 있어서 선수육성이 주목표인 엘리트 체육학교보다는 스포츠 관련 업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개교 했다. 물론 선수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006년 ASU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립당시와 현재의 발전상황에 대해 말씀한다면?

2006년 맨 처음 ASU를 설립했을 당시는 3명의 태권도 선수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학사과정은 물론이구 대학원과정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있다. 한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괄적으로 학사관리를 하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위임되어 있어서 주 교육국에서 학사관리를 하는데 대체로 대학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인가해 주고 개교 후 3년간의 운영실적을 보고 정식인가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학교도 이미 3년이 넘어 주 교육국의 정밀감사를 받고 정식으로 인가를 받았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학과는 스포츠 경영, 마케팅, 레크레이션 지도, 스포츠멀티미디어, 폴크경영학 등 전공 학과가 있지만 내년에는 스포츠외교학, 신학, 무도학과, 스포츠 모델링 등 많은 학과들이 신설되고 특히, 동

양의 의술인 한의학을 스포츠의학에 접목시키려 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합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스포츠 시장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연간 450만 달러(한화 약 500조원) 이상으로 이는 할리우드로 대변되는 영화산업의 7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우리나라 예산 규모의 약 1.5배에 달한다. 이러한 시장규모로 스포츠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 학교는 이런 스포츠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미국의 스포츠 시장과 ASU 졸업 후,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SU에서는 미국의 각 스포츠 관련 단체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로 월트디즈니사와 인턴십을 체결했고, LA Dodgers, LA Galaxy 등 프로구단의 프런트에서 재학 중 인턴으로 근무하다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원 취업을 목표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비단 스포츠 산업분야가 아니더라도 미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공원(각 공원마다 체육 시설이 들어서 있음)의 수익창출을 위해 체육 지도자가 배치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진로는 무궁무진하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 앞으로 전주대학교와 ASU와의 관계 및 전주대학생이 유학을 경우에 대한 배려는 있는지?

ASU는 California주 San Bernardino 시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시청, 법원, 카운티 경찰서 등이 위치하여 있으며 특히 유흥가가 없어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고, 한인 학생들을 위해 전원 기숙사 생활과 함께 영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또 다양한 장학금 지원 시스템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주대학을 졸업한 선배로 형편이 어려운 후배님들이 유학을 할 경우 다른 학생들 보다 좀 더 낮은 조건으로 혜택을 줄 것이다.

- ASU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얘기한다면?

내년에 국비유학생을 100명을 받기로 노동부와 계약을 하는 등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고 신설대학으로서 미국사회 내에서 학교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할리우드의 스타거리처럼 세계 최초로 스포츠 스타거리를 조성하여 (ISAS, Intemational Sports Avenue of Stars) 학교를 스포츠교육, 스포츠산업, 스포츠관광을 하나로 묶어 활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의 많은 스포츠계 인사들이 동참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WBC(세계복싱기구) 박물관을 교내에 설치하여 세계 챔피언 200여명을 초청하여 성대한 개관식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학교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 ASU가 전 세계의 스포츠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대학교 후배들에게 재미 사업가로서 그리고 ASU설립 이사장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인생은 살다보면 한편의 연주와 같은 생각이 든다.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는 말과 같이 이 세상은 정말로 할 일이 많다.

여러분이 진실로 바라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여러분은 언젠가 그 자리에 도달할 것이다. 현재의 형편과 조건을 탓하지 말라. 오히려 그 악조건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크게 만들 것이다.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매체제작 지원으로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 및 강사들에게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과 교수법 개선을 위한 총체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학우들에게는 다양한 전략적 학습방법 교육과 실천기회를 제공해 학습 만족도를 높여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수 지원으로는 강의촬영 분석 서비스인 "교수법 컨설팅", 교수자에 맞는 개별적 교수법을 개발할 수 있는 "수업개선 Mentoring Program"을 통해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교원간 팀별 소모임을 통해 교수(teaching)역량을 강화하는 "교수법 연구 소모임", 교수능력강화를 위하여 대학교육협회가 주관하는 "교수법 연수", "대내·외 교육전문가를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특강을 지원한다.

학습 지원으로는 재학생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JJ Superstar Fair"를 실시한다. 재학생으로 하여금 학습능력 증진과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습전략 및 학습

방법 특강"과 전공능력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초청 특강"으로 공동체 및 팀워크 의식을 배양한다.

매체제작 지원은 교육용 콘텐츠의 매체변환 서비스와 기자재 대여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e-learning 지원을 통해 효율적 교육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업기간 및 참여방법은 교수·학습·e-learning 지원의 경우 매년/학기별 학기 초에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일정은 사업 성격에 따라 조금씩 상이 다를 수 있다. 사업이 진행되어질 경우 전주대학교 홈페이지와 (<http://jj.ac.kr>)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 그룹웨어 회람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교수학습개발센터(CTL) 홈페이지 주소 : <http://ctl.jj.ac.kr/>
 교수학습개발센터(CTL) 위치 : 학생회관 2층 213호
 /김광룡, 이대중 기자

벚단



연극반 벚단은 1978년에 창설되어 현재까지 33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전통있는 동아리다.

전북대 '기린극회'와 원광대 '명석'과 함께 전북 도내 3대 연극동아리 중 하나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 2~3일에 공연했던 '김종욱 찾기'를 최근으로 하여 총 102번의 정기공연을 했고, 오는 2학기에 103번째 가을 정기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회장 박종원 (국어국문 4)학우는 "우리는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이지만, 프로 못지 않은 마음과 함께 피와 땀으로 점철된 노력의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103번째 공연을 기다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영균 수습기자

- 위치 : 학생회관 528호
- 연락처 : 박종원 회장(010-8448-9996)



게릴라 인터뷰

게릴라 인터뷰는 다양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편집자주

Q. 시험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은??

- 내가 좋아하는 CCM 음악을 듣는다. CCM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나아진다. 주현경(사회복지학 2)
- 조용한 캠퍼스를 음악을 들으면서 걷거나, 친구와 산책을 한다. 최혜진(대체건강학부 1)
- 세수 한번 하고 나가서 바람을 쐬고 20분정도 쉬 다음에 공부 시작!! 김병문(상담학 3)
- 사탕, 초콜릿, 커피, 젤리 등등 간식을 먹는다. 이유리(경찰행정학 4)
- 내가 다니던 요가학원에서 배운 동작을 취하거나, 운동을 한다. 박소연(국어교육학 3)
-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바람을 쐬면서 이야기하고 음료수 한 잔의 여유?? 익명(정보시스템학 3)
- 시험공부 하는 것을 멈추고 만병통치약인 잠을 잔다. 오지예(대체건강 1)
- 친구들과 시험이 끝난 후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정한 뒤에 계획을 세우면서 스트레스를 잊는다. 조보람(일본언어문화전공 2)
- 일단 먹는다. 먹으면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이완기도 하고, 수다를 떨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진다. 익명(리빙디자인학 1)

- ※ 기타의견
- 여자친구를 만난다. 보는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수그러든다. 채범규(경영학 3)
- 복분자를 마시며 한다. 알팔팔해서 기분이 업되고 잠도 깨고, 집중도 잡된다. 진서경(사회복지학 3)
- 영화 한 편을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본다. 익명(재활학 4)
- 노래방을 간다. 속에 쌓였던 시험에 대한 설움과 울분을 터뜨린다. 그러면 속이 아주 시원해진다. 익명(컴퓨터공학 1)

* 소개를 원하시는 동아리와 게릴라 인터뷰 질문이 떠오른 분은 전주대신문사 클럽(<http://jjnews.cyworld.com>)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스도쿠 풀어보기

778호

2				5		9	4
9				7			
		6					2
6	9		7	8	1		
				4			
		5	1	3		2	9
4				2			
			4				7
5	8		3				6

★ 규칙 ★

1. 아홉 개의 3×3 칸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2. 아홉 가로줄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3. 아홉 세로줄에 숫자가 1부터 9까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한다.

* 정답자에게는 선착순(전공별 1명)으로 6명을 선발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곳 : jjnews@jj.ac.kr (이름, 전공, 학년,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연락처: 권희망기자(010-3655-8030)

777호 정답

4	1	7	8	3	6	2	9	5
3	9	2	5	1	4	6	7	8
8	6	5	7	9	2	1	4	3
7	2	6	3	8	9	5	1	4
9	3	4	1	6	5	7	8	2
1	5	8	4	2	7	9	3	6
5	7	3	2	4	1	8	6	9
6	8	1	9	5	3	4	2	7
2	4	9	6	7	8	3	5	1

★ 777호 당첨자 ★

- 명지현(관광경영학 4)
- 이동교(경영관리 2)
- 이은혜(부동산학 2)
- 김은준(교회실용학 1)
- 진현경(중등특수교육학 3)
- 한유정(상담학 2)



로고스

행복한 사람, 세워지는 사람



김정호
(경영대학 경제학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민 앞에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워주심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 위치, 부 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조건, 인맥, 나의 능력 등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선택한 방법과 수단이 잘못되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이 순조롭게 잘 될 때도 방법이 좋아서라

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질보다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잘 되면 감사하신 하나님이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까지도 합니다. 잘 되면 축복이고 잘못되면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현 상황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상황을 봐야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화룡점정(畫龍點睛)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용을 그린 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으로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어 일을 끝낼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은 상

황이 바뀌면 언제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완벽하게 끝내주시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세움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버립니다. 이 세상에 내가 나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미천한 나의 능력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신명기 28:1)



겨자씨

‘수정되어지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 ‘발달’에 대한 정의를 듣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수억 년에 걸쳐 유인원에서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기에 수정에서부터 신생아기,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걸쳐 죽음에 이르기까지 발달의 과정이 오묘하고 신비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친다. 천지창조의 클라이맥스로 너를 지으신 하나님, 복 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자 행복 바이러스가 강의실에 퍼진다.

▼ 모두들 행복한 표정으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새롭게 희망의 불을 지핀다. 바로 그 불이었다. 코발트빛 바다, 깎아지른 해안절벽, 기괴한 바위, 원시림을 가득 채운 희귀한 나무와 꽃, 절벽 위에 그림처럼 펼쳐진 평원 죽도... 알려진 곳 보다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비경을 더 많이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 외지인을 뺀 원주민 7천여 명 중 70% 이상이 주님을 영접한 축복의 땅, 교회가 두, 세 개 세워지지 않은 마을이 한 군데도 없는 울릉도에서 만난 희망의 불이었다. 상담학과 졸업여행.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고도, 마을 중심부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니 면서도 3박4일을 신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문화를 꽃 피우는 일에 상담학과가 앞장서겠다고 결단했던 바로 그 희망의 불이었다.

▼ 예수를 만나면서 언제부터인가 낮은 단어로만 생각했던 ‘행복’이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왔다.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희망’이 소중한 되살아났다.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강의실에서, 각급학교에서, 관공서에서, 교회에서, 복지기관에서, 신문과 잡지에서 문자언어로 음성언어로 외치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행복의 여행을 떠나십시오. 이제 희망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권면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희망의 끈,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아멘.

장선철처장(선교지원처)



진리의 샘

“안목을 바꾸는 지혜” (전도서 11:7-10)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기쁨이 넘친다.



이순태 목사
(전주신광교회)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온종일 바쁘게 살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거의 습관처럼 되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자주 잊어버리곤 한다.

한 노신사가 지하철을 뚫다. 주일 아침 이어서인지 차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신문보는 사람,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사람, 졸고 있는 사람들이 들성들성 있었다. 어느 역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차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소란을 피우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고함을 지르고, 발에 걸리는 물건을 차기도 하고,

옆 사람의 신문을 가로채기도 하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이들의 아빠의 태도였다.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는 듯이 지긋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었다. 노신사가 참다 못해 한마디 던졌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댁의 아이들이 너무 소란을 피워서 많은 분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타일러 주세요” 그 말을 듣자 그 사람은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애들은 단속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시다. 우리는 방금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한 시간 전에 애들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노신사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한 순간에 그는 판 사람이 되어 버렸다. 시각이 바뀐 것이다. 짜증스러움이 사라지고, 그 남자의 고통이 자기 가슴에 진하게 밀려 왔다. 그러자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군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것이 없을까요?”

이런 변화를 놓고 사람들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환경과 여건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보는 시각과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 것이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펼쳐진 세상은 이 예화에 나오는 지하철 분위기와 다를 바 없다. 소란을 피우며 말성을 부리는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가? 아무리 보아도

웃을 만한 일이 별로 없는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주님은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시어 땅에 오셨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눈은 바뀌어진다. 슬프고 화나는 일들이 이제는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전에 못마땅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삶은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

예수님은 일에 분주하고 압박감을 받는 사람들에게 ‘들어 핀 백합화를 보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우리의 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면, 꽃 한 송이에도 하루를 즐거워할 수 있다. 푸른 하늘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계실 때,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환희를 누릴 수 있다. 행복은 오늘 여기서 누리는 것이다. 나름대로 정해 놓은 조건이 충족될 때야 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어둠이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2011 청년·대학·교사 창조과학 비전캠프 '천지창조 6일'

창조과학회 전북지부에서는 '천지창조 6일'라는 주제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대학부와 청년부,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창조과학 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낮 시간을 통해서 창조신앙다지기를 위한 특강과 창조과학 강연이 진행되며, 밤 시간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성 회복을 위한 시간이 마련된다.

또한 유은성, 좋은이웃찬양선

교단 등의 찬양사역팀이 함께하는 찬양의 시간도 계획되었다.

창조신앙과 구원신앙 회복을 위한 지성과 영성의 균형 있는 캠프가 될 것이다.

접수는 오는 7월 7일(목)까지이며 등록비는 7만원(6월 21일 이전 등록시 6만5천원)이다.



전라북도 기관장 목요기도회(홀리클럽) 종강



전라북도를 위한 기관장 목요기도회(회장: 이남식 전주대 총장)가 오는 16일 스타타워 3층 VIP실에서 1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도회를 갖는다.

전북 홀리클럽은 깨

끗한 사회, 거룩한 도시를 표방하며 나부터 변화하여 가정과 직장, 사회,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전라북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도내 크리스천 기관장 모임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조찬기도회를 갖고 있다.

채플 컨퍼런스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에서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경남 남해에서 2011년 선교지원

실 하게 워크숍 및 영성훈련을 진행한다.

선교지원처 1학기 업무에 대한 평가와 채플 리뷰의 시간을 갖고, 2학기 업무와 채플에 대한 계획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전 직원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하계 채플 컨퍼런스를 통해 선교지원처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대학교회, 장선철처장 초청 가정세미나

대학교회(담임 김승수목사)에서는 6월 1일과 6월 8일 저녁 8시 장선철 선교지원처장(상담학과 교수, 선교지원처장)을 초청 가정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가정회복과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열린 금번 세미나는 부부 및 부모로서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믿음으로 보여 주고 실천하고자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도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하나님만이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길 기대해 본다

1학기 종강 선교단체 및 기독교동아리 간사 간담회

선교단체 및 기독교동아리 간사 간담회가 지난 9일 12시 스타타워 VIP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 학기동안

학생들의 신앙 성숙과 훈련을 위하여 수고하신 간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2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향을 맞이하여 선교단체와 기독교동아리에서는 수련회와 아웃리치 등의 활동을 계획 중이며, 2학기 시작과 함께 월 1회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학생생활관 생활모범 우수관생 포상 실시

학생생활관에서는 6월 10일에 상점이 많고 별점이 없는 우수관생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였다. 2회째를 맞는 이번 생활모범 우수관생 포상에는 김자경(스타타워/문화관광2), 안재진(스타타워/사회과학4) 관생이 선정되었다.

한편,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생활관기도회에서 모범을 보인 권태종(스타타워/부동산4), 이찬영(스타타워/자동차기계공학2), 박다솜(스타타워/체육.4) 관생도 우수관생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우수관생으로 선정된 김자경 관생은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수칙위반을 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고 생활관 행사에 적극 참여했던 것이 포상을 받은 이유가 된 것 같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에서 장선철 관장은 "이번에 모범 우수관생으로 선정된 수상자들은 앞으로도 생활관 생활에 모범을 부어줄뿐만 아니라 전주대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수퍼스타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이들을 치하했다.

Save Green 에너지 절약 캠페인 기념품 증정

학생생활관에서는 매달 5, 15, 25일을 에너지절약 day로 지정하여, Save Green 점호를 실시하였다.

Save Green 점호 방법으로는 층장을 무작위 배정하여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에어컨(여름철 26°C) 및 보일러(겨울철 20°C) 온도 설정하기', '사용하지 않는 전등 소등하기', '컴퓨터 절전모드 설정하기',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 '멀

티콘센트 사용하지 않기'를 점검하였다.

한편, 이번 학기 에너지 절약 실천 우수 층에는 스타타워 C동 4층 관생 36명이 선정되어 학생생활관에서 제작한 기념품 '한지부채'를 받았다.

학생생활관에선 앞으로도 관생 참여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강화하여 에코 생활관 구축에 힘을 것이다.

학생생활관 1학기 퇴사 실시

학생생활관(관장 장선철)에서는 6월 17(금)~18(토)일 이틀에 걸쳐 1학기 정규 퇴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규퇴사는 학기 입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관생들의 편의를 고려하

여 운영사무실에서 진행하던 개인별 퇴사점검을 자가점검 실시 후 퇴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운영사무실에서는 무단퇴사 시 시설보증금이 공제되므로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선교동정 | 장선철 처장 특강

- 06.01(수), 06.08(수) 대학교회 가정세미나

- 06.08(수) 임실고등학교

- 06.09(목) 부안교육청

<< 대학교회 예배시간 >>

■새벽예배 월~금 06:00 ■주일낮예배 주일 11:00
 ■대학청년부 주일 13:30 ■수요예배 수요일 19:00

2011년 여름방학, 2학기 학생생활관 관생 모집

2011학년도 여름방학 및 2학기 학생생활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생활관

생활관명	스타타워	스타빌	스타홈
침실구성	1인실(장), 1인실, 2인실, 4인실	2인실	2인실
시설수준	화장실 및 샤워실(개별)	화장실 및 샤워실(공동)	
기타	식당,편의점,빨래방,카메라,공통취사실,휴게실,세탁실	식당, 세탁실, 독서실,공동취사실, 휴게실	세탁실, 공동취사실, 휴게실

■ 모집단위 및 기간

- 여름방학 입사 : 3주(2011년 6월 20일 ~ 2011년 7월 8일) · 10주(2011년 6월 20일 ~ 2011년 8월 26일)
- 2학기 입사 : 16주(2011년 8월 29일 ~ 2011년 12월 16일)
- 반기(2학기+겨울방학) 입사 : 26주(2011년 8월 29일 ~ 2012년 2월 24일)

■ 모집일정

구분	여름방학	2학기
입사 신청	2011.5.30(월)~6.3(금)	2011.6.7(화)~6.17(금)
입사 대상자 선정발표	2011.6.13(월)	2011.7.25(월)
생활관비 납부	2011.6.13(월)~6.17(금)	2011.7.25(월)~7.29(금)

■ 입사신청방법 | 전주대학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http://startower.jj.ac.kr) 회원 가입 → 입사신청

■ 생활관비 납부 1) 납부방법 : 무통장 입금 2) 입금계좌 : 광주은행 580-107-000294 스타타워(유)

※ 주의 사항

- 등록기간 내에 생활관비(식비포함)를 미납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미등록 결원 발생 시 대기신청자에 한하여 선정
- 입금 시에는 해당 입사자의 성명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타인 입금 시 홈페이지 상담신청에 글 작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록 취소될 수 있음
- 여름방학 룸메이트는 랜덤 배정될 예정이며 2011-2학기 룸메이트 신청은 생활관비 납부 후 룸메이트 신청 기간 내에 홈페이지 상담신청에 글 작성

■ 생활관비

구분	스타타워			스타빌		스타홈
	1인실	2인실	4인실	2인실	2인실	
여름방학(3주)	352,500	240,000	187,500	172,500	161,250	
여름방학(10주)	1,105,000	730,000	555,000	505,000	467,500	
2학기(16주)	2,118,000	1,518,000	1,238,000	1,158,000	1,098,000	
반기(26주)	2,763,000	1,938,000	1,553,000	1,443,000	1,360,500	

비고. 1. 상기에서 반기 입사는 4주분의 생활관비가 환원된 금액임(26주 → 22주 금액)

2. 식비는 1일 2식(1회 2,000원)이며 공휴일과 일요일은 제외되며 방학기간에는 별도로 이용자를 파악하여 운영할 예정임

3. 생활관비에는 식비와 입사 시 짐기비용 파손에 대한 시설보증금(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보증금은 퇴사 시 정산 후 환불할 예정임

■ 특전 : 학생생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정의 수강료를 지급 후 참여 가능.

- 1) 여름방학 : 영어캠프
- 2) 학기 : 취업 및 자격증관련

※주의사항 : 학생생활관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할 수 있음.

스타타워 운영사무실 TEL. 063-239-5500~5501 FAX. 063-239-5506

스타빌/스타홈 운영사무실 TEL. 063-239-6100~6101 FAX. 063-239-6104



开发东西方饮食及食品商品的第9届毕业作品展-‘礼物’开幕

韩食料理学科‘礼物’节-第9届毕业作品展开幕

- 奋力迈向韩食国际化! -

韩食料理学科(学科长 韩福 食, 饮食产品等被开发的共同作品 本月3日~4日, 两日期间, 在 19件参与展出。科代表金文姝 我地域革新馆105号举办了毕业 (4) 同学表示, “通过毕业作品 作品展。我在困难面前发现并且弥补了 自己的不足, 努力准备并结出果实 的喜悦难以掩饰”。

本次活动以‘礼物’为主题, 挑选了混合东西方饮食的44件个人作品及作为韩国传统的婚礼饮 韩食料理学科是我校11年前

成立的在国内4年制大学中系统学习韩国传统饮食的学科。去年7月被农林水产食品部选定为韩食料理科性化大学, 4年间将获得24亿元 的支援, 在培养韩食专门人才上被 寄予厚望! /权希望 记者

Star Center开馆暨 'HUNIVERSITY' 出版纪念仪式

我校于5月19日在位于首尔的 plaza酒店举行了 'Star Center 在接下来祝词及大学发展基 金转达仪式上, 转达了包括梁庭武 会长及会员所捐共1亿元, 金福淑 女士所捐计1000万元, 吴春植院 长(韩国建筑生活环境试验研究 院)所捐款金等在内的大学发展基 金, 仪式上韩国著名歌手朴君英献 唱。

郑尚权博士在谈到HUNIVERSITY & Star Center Design Book发刊动机时说到, “我作为 大学专栏的记者及大学讲师, 与韩 国的大学有千丝万缕的缘分。20 年来投身大学教育与研究工作, 尤其是我对全州大学7年来的不中断 的观察, 一直促使着我努力探寻引 导韩国大学革新性变化的原因, 并

李南植院长指出, “Star Center的建成, 全州大学校的快速发展等都是上帝主管之下给我们创造的珍贵礼物”, 并嘱托在场的来宾 “为全州大学今后的发展多所祈祷和声援”。 /金龙龙 记者

外食产业学科 ‘第4届学术节’开幕

- 外食产业的未来 和活性化方案 -

外食产业学科(学科长 民继 鸿)于6月2日在我校艺术馆JJ艺术楼举办了主题为‘外食产业的未来及活性化方案’的‘第4届外食产业学科学术节’。

本次活动上, 外食产业学科4年组的同学们利用自己所学的外食产业知识及相关理论, 以及往来于各地现场学习到的内容为依据, 各自选定主题, 通过调查方法发表



外食产业学科的同学发表毕业论文并对论文展开讨论

毕业论文并对论文展开讨论。160 参加学术节的金恩淑(1) 同学表示, “这是一次能够在外食产 业领域里一起分享前辈们精彩的论 文并体会外食产业深厚的亲和力的 意义深刻的活动”, /权希望 记者

身在海外 心系祖国

- 聚焦国内热点新闻 -

- 6月7日 经最高人民法院核准, 故意杀人罪犯药家鑫在陕西省西安市被依法执行死刑。
- 6月7日 全国933万考生参加高考, 参考人数连年下滑, 高校录取率持续升高。
- 6月8日 中科院院士承认三峡工程影响生态平衡, 称工程完工地震增加。
- 6月8日 大陆暂停进口台湾受塑化剂污染产品已达948种。
- 6月8日 新疆托克逊县发生5.3级地震, 乌鲁木齐震感强烈。

人生感悟

末日预言如何看待

二十一世纪, 气候异常, 世界各地灾难不断传出, 甚至不同形式的末日预言也相继出现, 人们究竟该以什么样的心态面对不可预知的将来?

日本的幸岛是观光胜地, 岛上的游客会到海边游泳, 也会把人类喂食的薯薯用海水洗干净再吃, 因而获得‘文化猴饭’的称号。

1950年, 日本研究人员对岛上的猴群进行一项实验观察, 发现绝大多数岛上猴群都会通过学习养成新的行为, 更出人意料的是, 高崎山和其它岛屿与幸岛相距约200公里, 猴群间几乎毫无关系, 然而这些地方的猴群也陆续开始了同样的行为。莱尔·华特逊认为, 只要猴群达到约一百只时, 同样的行为便会自然地传播到其它生活在远处的猴群, 并称之为‘百只猴猴现象’!

另一个类似的例子发生在1920年代的英国小镇, 当地的山雀会把牛奶工人进来的牛奶喝完。令人不解的是, 山雀的活动范围很小, 飞行能力十分有限, 可是这种原来只发生在小镇的事件, 竟然扩展至全英国, 甚至于1947年同样的情形也隔海出现在荷兰和瑞典, 也就是这种传播的现象, 不仅是距离上的横向传播, 甚至是时间上纵向的隔代遗传。

例子, 提醒人们思想不仅可以传播至远方, 甚至随着时间的递进创造更深远的影响, 因此要时时检视自己的心念, 常保善念, 我们认为, 当今人类面对环境的遽变, 要认真看待这个大自然教给人们智慧, 宁信其有, 并从自身做起, 爱护地球也爱护自己, 至于人类是否足以改变外在环境, 无论是文字, 声音, 意念等, 都带有讯息的能量, 而心念可以改变水分子结构, 使水结晶呈现不同的面貌。

由于人体以及世上万事万物大部份都是由水构成, 因此日本江本胜博士的水结晶实验带给人改变物质世界的可能性, 自然在世界各地引起很大的回响, 上述的实验告诉我们, 任何的作为无论多么微不足道都有其影响力, 假以时日都会发生效果, 物质虽然看似没有生命, 却能分辨讯息的好, 坏, 并呈现出相应的结果。

吴诗敏 (交换学生 中国台湾)

JJ Superstar Festival “Dream, Passion and flying high”

A High-class Festival, The Place for Unifying its Members



Parade, JJ Superstar Festival's curtain rises.

On May 25th, more than 12 thousand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three-day 2011 JJ Superstar “Dream, Passion and flying high” Festival organized by the 38th General Student Government Korea (President Sol Pak) and the 27th ‘High Five’ Clubs Association (President Yang-heon Kim), held in the area near the outdoor theater.

On May 25, the festival was begun at 17:00 by the JJ Superstar Parade and congratulatory

messages from various important dignitaries. The events for that day included an inn's taste-testing competition, a Superstar foot-volley ball (jokku) contest, a Superstar Running Manevent, a CCM competition, food booths from club son campus, along with a Superstar J and other special events.

On May 26th, the 16th Annual White Horse Cheering Festival washed with performances from

Baejae University, Honam University, Sunmoon University, Keimyung University, Wonkwang University, Kyungshung University, and Daejeon University. Other shows were held on that day along with a congratulatory concert from ‘Girl's Day’ concluding the day.

On May 27th, events included the Tae kwon do Demonstration Corps' performance, ‘Find your other half, a Wedding Fashion show, a Junior Chairman Talent Show, fireworks, and also performances by the rapper, San E and the group, T-ara.

Student Sol Pak said: “I wish our students would participate independently with their dreams and passion, and I hope we can organize a place for harmony among all of the members.” President Nam-sik Lee remarked, “I wish it were a prestigious festival that would attract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would become an event that is held together with the citizens, and I wish it would become an instrument to show the university's growth and development.”

Professor Joo-seung Byun, ‘The University's Heritage of 2011, The Future of Korea’ selection

‘The Great Heritage of the University’ selection



The book of Maps from Korean Regional Provinces (Kuk-yeokyeojido-seo) was translated by Professor Joo-seung Byun (Department of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steam, and was selected as ‘The University's Heritage of 2011, The Future of Korea’ operated by the professors' newspaper (Selection Committee Chairman Bae-yong Lee, National

Brands Committee Chairman).

The overall number of books of Maps from Korean Regional Provinces (Kuk-yeokyeojido-seo) totals 50; the work was started in May of 2002 by Professor Byun and 20 people majoring in Korean History,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In 2009, after eighty ears of research, the series was fully translated and published (Jeon ju University, series of Classics translated in to Korean 1).

The Kuk-yeokyeojido-seo (book of Maps from Korean Regional Provinces) is a supplement to the Updated Version of Korean Book of Maps on Regional Provinces, Shin-Joong Dong-kuk Yeoji Seoungnam, which was put together and arranged by an thropo geography of the early days of the Chosun Dynasty. This book is not

only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late Chosun Dynasty, but also includes necessary data regarding the late Chosun Dynasty's history research. For this reason, it was selected as ‘The Great Heritage of the University’.

Professor Byun expressed that “during the last 10-year period, we devoted ourselves to translating the Classics and I want to honor my colleagues and scholars majoring in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Above all things, if you work hard in your field and involve yourself in research, you'll be able to create not only a brand with a nation wide competitiveness, but a brand representing Korea to the world. I find life worth living because we have been able to set such an example.”

Bible Devotion

The Favor of the Lord

Brian Heldenbrand

Genesis 6:8-9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9 This is the account of Noah. Noah was a righteous man, blameless among the people of his time, and he walked with God

What do we understand about Noah? Noah lived a life that God was pleased with. The Bible says Noah was righteous and his life among the people was one of honesty and purity. Ultimately, Noah made a choice to “walk with God.” I believe Noah's decision to walk with God brought a smile to the Lord's face and in turn, the face of the Lord shined on Noah. As God's people, we should desire to please the Lord with our lives. We should desire God's face to shine upon us. Numbers 6:25 says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What do we need to do in order for God to smile upon us? Church, we need to love and obey God. Matthew 22:37-38 says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If we love God, we will choose to obey Him. The Bible says in John 14:15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Let's make God smile in our lives by loving Him and being obedient to Him. As 2 Corinthians 5:9 says, “... we make it our goal to please him.” Tell the Lord today that you desire to please Him above all else.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and do it wholeheartedly.

Fashion Industry Major's 'ICON' Graduation Fashion Show Festival

Study Abroad Scholarships, Fashion Show Grants, Sponsorship Initiatives and more



The major of Fashion Industry (Major Professor, Hyun-jeong Park) opened the “2011 Fashion Industry Major Graduation Fashion Show” in Star Center's Multi-purpose Hall on May 25th. The fashion show began with images of original symbols, and eventually organized under the theme of “ICON, which exists in all spheres of today's life”. 81 pieces of fashion merchandise in Technology, Environment, Sports, Multi cultural,

Peace, and other Fashion fields were presented in six total sections. Also, digital lighting was used during the performance.

“Serim TTC (Enterprise)”, Korea's representative for casual wear enterprises, funded one million won for the fashion show, and last May 3rd, the “Fashion Group Hyung ji” (President Byong-o Choi) offered 50 million won as a scholarship in the 2nd Fashion Course Abroad Program.

Student Ji-min Lee (Culture and Tourism Department, freshman) commented, “I enjoyed time spent here. I was looking at the Multi cultural dresses (Cultural Mosaic) and it seemed like angels were walking down the runway. It was a valuable experience for me.”

오직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는 대학

2011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접수기간 : 2011. 05. 13(월) ~ 06. 30(목)
- 홈페이지 : <http://gengrad.jj.ac.kr>
- 문의 : 일반 대학원 : 063)220-2139 / 특수대학원 : 063)220-2179
 선교신학대학원 : 063)220-2683 / 교육대학원 : 063-220-2647
 대체의학대학원 : 063-220-220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gengrad.jj.ac.kr>

Aaron TAN (하버드대학 건축학 석사)

싱가포르 신경계계획 프로젝트 참가
 중국 도심 디자인 & 교육 캠퍼스 프로젝트 참가
 대만 고속도로 센터 프로젝트 참가
 홍콩 상가타워 프로젝트 참가
 한국 통신본부, W호텔 프로젝트 참가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국제공모 수상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학교



최첨단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조형성이 뛰어난 미래지향적 교육공간

캠퍼스 몰(Campus Mall)로서의 스타센터
 미래지향적인 세련된 디자인과 공간(RAD, Aaron Tan 설계)
 유비쿼터스도서관, 국제회의장 등 문화적 네트워크 허브 공간

